

# 사통팔달 교통망에 교육·생활 인프라 풍부 '눈길'

## Q 르포 | '영등포 중흥 S-클래스' 견본주택 가보니

“교통이 편리하다고 생각해 분양상담을 받으러 왔다. 직장에 다니는 아들 내외를 대신해 방문했는데 목동학원가와 가까워 교육여건도 적격인 것 같다.”

견본주택에서 만난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A씨(60)의 말이다.

중흥건설 계열사인 중흥토건은 지난 11일 서울 양평동에서 '영등포 중흥S-클래스' 견본주택을 오픈했다.

'영등포 중흥S-클래스'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 247번지에 들어선다. 지하 4층~지상 24층 2개동, 전용면적 24~84㎡로 308가구 중 17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분양관계자는 단지의 가장 큰 장점으로 교통여건을 꼽았다. 걸어서 약 5분 거리에 지하철 5호선 양평역이 있다. 2호선과 5호선의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도 가깝다. 오는 2020년 개통을 목표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영등포기계상가 재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영등포 중흥S-클래스'는 중흥이 서울에서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처음 선보이는 아파트다.

양평역·영등포구청역 모두 가까워 55·84㎡ '부분임대' 특화설계 관심

분양관계자는 “내방객 중 인근 오래된 아파트 거주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 방문객들의 기대감이 크다”고 전했다.

이날 중흥토건이 공개한 분양가는 ▲24㎡ 2억2000만~2억4000만원 ▲28㎡ 2억6000만~2억7000만원 ▲55㎡ 4억8000만~5억 ▲59㎡A 5억~5억4000만원 ▲59㎡B 5억~5억4000만원 ▲59㎡C 4억9000만~5억5000만원 ▲84㎡A 6억7000만~7억 ▲84㎡B 6억8000만~7억5000만원이다.

3.3㎡ 당 분양가는 2100만원 선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슷한 가격에 책정됐다.

발코니 확장비용은 분양가에 포함되며 중도금 대출도 가능하다. 그러나 분양가가 비싸다는 내방객의 의견도 있었다.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B씨(58)는 “다른 지역 신규 분양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가 다소 비싼 것 같다”며 “발코니확장비가 포



'영등포 중흥S클래스'는 5호선 양평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다.

함됐다”고 하는 하지만 그래도 부담스러운 가격”이라고 아쉬워했다.

생활 편의시설로는 코스트코 양평점, 롯데마트 양평점, 현대백화점 목동점, 홈플러스 영등포점, 영등포 타임스퀘어 등이 근처에 있다.

학군으로는 단지 인근에 영문초, 문래중, 관악고 등 초·중·고교가 모두 위치해 있으며 목동학원가도 가깝다. 당산공원과 안양천도 인접해 있다.

분양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평형별 전시관을 관람했다. 24㎡의 경우 신혼부부들이 살기 적합한 원룸 형태, 84㎡A는 이면개방, 84㎡B는 세대분리형으로 설계됐다. 남향위주의 배치로 통풍과 채광효과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분양관계자는 “전용 55㎡형과 전용 84㎡B형은 집 한 채로 실거주와 임대소득까지 얻을 수 있는 '부분임대' 특화설계가 적용돼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등포 중흥S-클래스'의 분양일정은 오는 15일 특별공급, 16일 1순위 청약, 18일 2순위 청약, 당첨자 발표는 25일이다. 입주하는 오는 2021년 3월 예정이다.

분양관계자는 “영등포 중흥S-클래스는 서울 3대 도심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영등포뉴타운' 조성에 따라 집값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사진=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 악재 딛고 새출발... 내달 거래재개 목표

### 코스닥 기업탐방

#### 비트로셀

신공장 제품군·공정별로 건물 분리 올해 사상 최대 매출액 1350억 목표

국내 1위, 세계 3위, 업력 30년을 자랑하는 리튬1차전지 생산기업 '비트로셀'. 충남 당진에 위치한 비트로셀 공장에는 다소 적막감이 감돌았다. 건물 여기저기에 붙은 안전표지판은 지난 화재의 아픔이 가시지 않았음을 의미했다.

비트로셀은 지난 200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후 단 한번의 역성장도 기록하지 않았다. 매출액 400억원대에 불과했던 기업은 10년 새 1000억원대 기업으로 성장했고, 해외 매출 비중 역시 최근 10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리튬2차전지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지만 1차전지 시장은 여전히 공고하다. 사용기간이 10년 내외로 길고, 극한 조건에서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전기·수도·가스 미터기를 비롯해 군수용품 등 전방사업 분야에서는 1차전지를 필요로 해서다.

장밋빛 전망만 가득했던 비트로셀에 화재라는 악재가 덮친 건 작년 4월이었다.

장승국 대표는 당시 상황에 대해 “전 임직원은 공장이 전소되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인화성이 강한 원·부자재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후 시장에서는 비트로셀 사업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비트로셀 생산 중단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하지만 장 대표는 화재 직후 모든 임직원을 불러모아 회사의 새출발을 약속했다. 그리고 단 한 명의 정리해고자도 없었다.

시장의 우려와 달리 비트로셀은 악재를 1년 만에 극복하며 단단하게 돌아왔다.

신공장은 기존 생산공장의 3배인 4만



지난 10일 충남당진 비트로셀 본사에서 진행된 기업 설명회에서 장승국 비트로셀 대표가 회사 사업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위). 비트로셀에서 생산하는 제품. /손영지 기자

4548㎡ 규모로 연구개발(R&D)시설과 생산동, 신뢰성 시험센터 등 19개 동을 갖췄다. 또 다시는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군과 공정별로 건물을 분리하고 건물 사이에는 안전 거리를 확보했다. 내진 설계도 진도 7이상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제 비트로셀은 주식거래 재개만이 남았다. 장 대표는 “오는 17일까지 개선이 행내역서를 제출하면 내달 7일쯤 주식거래가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복구 원년인 올해 사상 최대 매출액인 1350억원을 목표로 잡았다. 영업이익 역시 21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 대표는 “대형 화재를 겪고도 고객사들이 떠나지 않았던 건 비트로셀만의 독보적인 기술력 덕분이다”면서 “오는 2021년에는 매출액 2000억원, 영업이익 300억원으로 글로벌 시장 세계 1위 기업으로 입지를 굳힐 것”이라고 밝혔다.

/당진(충남)=손영지 기자

## 미술 경매시장 호조로 수혜 기대감

### 株라쿨라의 종목

#### 서울옥션

포스트 단색화 작품 재평가 기대 홍콩·온라인 경매도 긍정적 요인

“지난 2015년 서울옥션의 주가는 단색화의 재평가 속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최근 '포스트 단색화'로 불리는 민중미술을 필두로 잠시 주춤했던 국내 미술품 경매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 서울옥션의 저평가 국면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 최성환 수석 연구원은 13일 “올해 국내 미술 경매 시장은 2000억원 규모를 넘어설 전망이다. 최고 활황기로 기록된 2007년의 1926억원도 뛰어 넘는 수준”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단색화 작품의 해외 전시가 확대되

면서 완만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중미술 작가인 오윤, 임옥상, 민정기 등의 작품 재평가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최근 1980년대 한국 민주화 운동이 격렬했던 시기 풍경을 사실적으로 담은 민중미술이 '포스트 단색화'로 불리며 각광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홍콩의 경매 성과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서울옥션은 국내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홍콩에 상설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3회 이상 홍콩 현지 경매를 실시하고 있어 작품 위탁 문의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미술품 구매가 대중화되면서 온라인 경매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실제 온라인 경매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옥션의 자회사 서울옥션 블루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지난 2016년 78억

원에 불과했던 온라인경매 낙찰금액은 지난해 143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200억원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최 연구원은 서울옥션의 연결 기준 올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8.3% 증가한 123억원, 영업이익은 139.7% 증가한 11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3.5% 수준에 머물렀던 유효 수수료율이 상승하면서 수익성 개선을 이끌 것이란 평가다.

최 연구원은 “글로벌 경매업체 소더비의 유효 수수료가 17.2%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수익성 개선이 높아질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리서치알음은 서울옥션에 대해 ‘긍정적’ 주가 전망과 함께 적정주가 1만3500원을 제시했다. 현재 주가 대비 43%가량 상승 여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 한화건설, 임직원 대상 어학수업

### 수강비 90% 지원·토론식 수업 인기

한화건설은 이달부터 임직원 대상 어학수업을 개설해 퇴근 후 교육에 돌입했다.

시험적으로 공인인증영어말하기 시험(OPIC) 난이도에 따라 2단계의 클래스를 개설했다. 해당 강의는 접수 이틀 만에 수강자가 마감되는 등 인기가 높다. 수강비의 90%를 회사에서 지원하며 강의 또한 토론식 수업으로 진행한다. 수강생들은 실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입을 모은다.

최광호 대표이사는 수시로 임직원의 의견을 조직문화에 반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도 올 초 진행된 임직원 설

문조사 내용을 반영해 개설했다. 향후 비즈니스 라이팅(Writing) 및 커뮤니케이션, PT 기법, 캘리그래피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임직원 자기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한화건설은 즐거운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다. 가장 큰 호응을 받는 것은 과장~상무보 승진 시 1개월 간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안식월 제도’와 오전 7~9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출근시간을 선택하고, 정해진 근무시간 이후에는 자유롭게 퇴근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의 적용이다.

그 외에도 기존 ‘비즈니스 캐주얼’ 착용과 ‘홈데이(오후 5시 퇴근)’를 주 2회로



한화건설 임직원들이 일과 후 어학수업을 듣고 있다. /한화건설

확대했다. 야근을 최소화하기 위한 ‘야근 신고제’를 도입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야근이 지속되는 팀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 멘토링하는 ‘업무클리닉’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한화건설 최광호 대표이사는 “임직원들의 직장 내 만족도가 곧 회사의 경쟁력”이라며 “누구나 다니고 싶고,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peace@